

역사 속 妖賊이 소설 속 巾幗英雄이 되기까지*

— 청대 『女仙外史』를 중심으로

김정아**

【목 차】

1. 서 론
2. 명대 요적 당새아
3. 『여선외사』 속 건괘영웅 당새아
4. 요적에서 건괘영웅으로의 변신
 - 1) 당새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 '反反者不爲反'
 - 3) 人理의 집행자, 당새아
5. 결론

【초록】

본 논문은 명대의 역적 당새아가 청대 소설 속에서 돌연 女仙이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의 형상으로 변신한 데 주목하고,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극적인 변신을 이루게 된 원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존인물 당새아의 행적 및 그녀에 대한 명대인의 평가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 청대소설 『여선외사』 속 당새아의 형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당새아형상의 극적 변신의 이유를 소설의 창작 동기 및 평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역적 당새아의 소설 속 변신은 청대 초기의 사회적 배경, 즉 왕조 교체로 인해 명대에 발생했던 정난지변을 재조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키워드】 당새아, 연왕, 건문제, 정난지변, 건괘영웅, 여선외사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876)

**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shun7ziran@deu.ac.kr)

1. 서론

중국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중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형상은 그다지 드문 편이 아니다. 자아실현을 위해, 보은을 위해, 때로는 백성을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佳人과 俠女이야기는 당·송의 傳奇부터 명·청의 재자가인소설과 협의소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등장하였다.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천하의 난을 평정하는 기개를 가진 영웅형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면, 중국 문학작품 속에서 그런 여성형상을 찾기는 매우 쉽지 않다. 만일 중국문학사에서 능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제 몫을 담당한 여성영웅의 형상을 찾는다면, 그 효시는 아마 木蘭이 될 것이다. 북조의 악부시 「목란시」는 노쇠한 아버지와 어린 남동생을 대신해 10년간 남장한 채 종군했던 목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녀는 여성영웅의 한 원형을 이루며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 받으며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해 공을 세우는 여성형상이 소설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무래도 당·송·원의 왕조교체기를 겪고 난 이후의 일이다. 예를 들어 『隋唐演義』에 등장하는 平陽公主는 부친 李淵과 남편 柴紹가 거병하여 수나라에 반기를 들었을 때 가산을 팔아 7만에 달하는 병사를 모집하는데, 그녀가 이끈 부대는 娘子軍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친다. 또 『陽家府演義』는 북송대의 명장 楊業(?~986) 일가의 충정과 전장에서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데, 며느리 穆桂英을 비롯해 양씨가 문을 빛내고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한 여성영웅 22인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위에서 예로 든 여성영웅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특정 시기, 특정인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용맹함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대중의 기호와 바람이 투영되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여성영웅들은 독자적인 전기를 가지지 못한 채 남성영웅 가족체계의 한 부속으로 활약하는데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대 백화소설 『女仙外史』는 중국소설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여선’은 바로 소설의 주인공 唐賽兒를 가리킨다. ‘외사’라 이름붙인 것은 작가가 사사로이 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사’와 구별 짓기 위해서였다. 즉, ‘여선 외사’라는 명칭은 여선 당새아를 주인공으로 삼은 독자적인 ‘傳’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소설 속 당새아는 연왕이 일으킨 ‘靖難之變’¹⁾을 제압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巾幗英雄²⁾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20여년이나 지속된 대전쟁 끝에 마침내 역적 연왕을 처단하고, 억울하게 연왕에게 죽임을 당한 충신과 열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명 왕조를 반석의 기틀 위에 올려놓는다. 100회에 이르는 장편소설에 여성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산동지역에서 농민반란을 일으켰던, 명대에 실존했던 역적이었다는 점이다. 청대의 작가 呂熊은 명대 민간종교조직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킨 당새아를

1) 중국에서는 ‘靖難之役’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정난지변’ 혹은 ‘정난의 변’이라 지칭하기에 이를 따랐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석 18) 참조.

2) ‘건궐’은 고대 여성들이 장식용으로 쓰던 머리 장신구를 이르는 말로, ‘건궐영웅’이란 바로 여성영웅을 일컫는다.

소설 속에서 천상세계의 선녀 嫦娥의 後身이자, ‘정난지변’을 진압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묘사하였다. 『여선외사』 속 당새아는 당당히 ‘영웅’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역사 속 당새아는 결코 영웅소설의 주인공에 걸 맞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먼저, 그녀는 조정에 반역을 일으켰던 반란군의 우두머리였고, 둘째, 예교가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보잘 것 없는 평민이자 여성이었으며, 셋째, 대중에게 사랑받거나 동정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아니었다. 대중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캐릭터가 청대 돌연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것도 천하를 호령한 여성영웅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명대 ‘반역의 우두머리’가 청대 소설 속에서 돌연 ‘여선’이자, 나라를 구하는 ‘건국영웅’의 형상으로 변신한 데 주목하고, 그녀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극적 변신을 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대의 기록을 통해 실존인물 당새아의 행적 및 그녀에 대한 명대인의 평가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 청대소설 『여선외사』 속 당새아 형상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당새아 형상이 극적으로 변신하게 된 이유를 소설의 창작 동기 및 평어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2. 명대 요적 당새아

연왕 朱棣는 조카 건문제(建文帝)를 대상으로 벌인 4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황위를 찬탈하고, 영락제로 등극한다. 전쟁 동안 산둥지역은 북평의 연왕군과 남경의 건문제군이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면서 맞붙을 수밖에 없는 지역³⁾이어서, 그 피해가 심각했다. 황제로 등극한 후,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서 자신의 근거지인 北平⁴⁾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남방의 식량을 북방으로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하사업을 계획한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영락제가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京杭大運河 개통을 위해 산둥성 濟寧과 臨淸 간의 會通河공사에 착수하면서, 이 지역 백성들은 부역으로 인한 고통에 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연이어 발생한 홍수, 가뭄, 蝗災, 우박 등의 재해로 인해 산둥지역은 심각한 식량난이 야기⁵⁾되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부역을 피해 도망가거나 조정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3) 산둥성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특히 제남(濟南)지역의 경우, 연왕군이 수도 남경으로 남하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 했고, 건문제군은 연왕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이곳을 지켜야 했다. 건문2년 연왕군이 제남을 둘러쌌고, 3개월간 공격을 퍼부었으나, 右參政 鐵鉉, 盛庸이 성공적으로 이곳을 지켜낸다. 그 해 10월 연왕은 전세를 가다듬어 다시 남하하여, 산둥성 德州, 臨淸, 동아東阿, 東平을 지나 東昌에 이르고, 이곳에서 두 군대가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를 ‘東昌之戰’이라 부른다. ([百度百科] ‘東昌之戰’: <https://baike.baidu.com/item/%E4%B8%9C%E6%98%8C%E4%B9%8B%E6%88%98/734603?fr=aladdin>)
- 4) 홍무원년(1368) 주원장이 연왕에게 이곳을 하사하며 北平府라 하였는데, ‘북방이 평화롭다(北方和平)’는 뜻에서 이름을 취하였다. 후에 영락19년(1421) 수도를 북평으로 천도하면서 이곳을 ‘북경’이라 하였다. ([百度百科] ‘北平’: <https://baike.baidu.com/item/%E5%8C%97%E5%B9%B3/1193468>)
- 5) 永樂十七年, “山東、河南、山陝諸處饑荒水旱相仍, 至剝樹皮, 掘草根……老幼流移, 顛路道路, 賣妻鬻子, 以求苟活”. 談遷, 『國權』, 卷17 ([中文百科在綫]: <http://www.zwbk.org/MyLemmaShow.aspx?zh=zh-tw&lid=107291>)

에 내몰리게 되었다.

당새아에 대한 기록은 『明太宗實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실록은 영락18년(1420) 2월 己酉부터 그해 3월 戊戌까지, 당새아가 난을 일으킨 후의 전개과정 및 황실군이 난을 진압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래는 실록에서 당새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

산동 포대현의 요부 당새아가 난을 일으켰다. 새아는 본 현에 거주하는 임삼의 아내이다. 어려서부터 불경을 잘 암송하고, 스스로를 佛母라 칭했다. 과거와 미래, 승패를 꿰뚫어 볼 줄 안다는 케언을 일삼았고, 또한 중이를 오려 사람과 말을 만들어 전쟁을 하도록 할 수 있었다.⁶⁾

실록은 당새아를 산동 포대현의 ‘妖婦’⁷⁾라고 지칭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새아는 과거의 일과 미래의 결과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로서의 능력과 무생물을 생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당새아가 정말로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검증할 길이 없으나, 적어도 한 가지 능력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사람들이 그녀가 것처럼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게 만드는 능력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까? 당새아가 어려서부터 불경을 잘 외웠고, 스스로를 ‘불모’라 칭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녀는 아마도 불교에서 파생된 민간종교(백련교)의 정신적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산동지역은 예로부터 백련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원말 至正 17년(1357)부터 21년(1361) 사이, 毛貴가 이끄는 백련회의 紅巾軍⁸⁾이 靑州, 萊州, 濟南府 등지를 점령하였다. 모귀는 이곳에 寶興院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조세를 정돈하는 정책을 펴는 등, 이곳을 점령한 4년 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군에 의해 패하긴 했으나, 그 영향력은 산동일대에 존재하며, 명초까지 이어졌다.⁹⁾ 당새아가 스스로를 ‘불모’라 칭했고, 그녀의 군대가 紅白旗를 상징으로 삼았음을 미루어볼 때, 그녀는 백련교와 같은 민간종교조직을 기반¹⁰⁾으로 농민기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당새아의 농민군은 靑州 益都縣 내 卸石棚寨를 거점으로 삼는다. 영락제가 靑州衛都指揮使

6) 山東蒲臺縣妖婦唐賽兒作亂, 賽兒, 縣民林三妻, 少好佛誦經, 自稱佛母, 詭言能知前後成敗事, 又云能剪紙為人馬相戰. 『明太宗實錄』, 卷222, 永樂18年2月 己酉條. ([中國社會科學網]: http://ex.cssn.cn/sjxz/xsjdk/zgjd/sb/jsbml/mtzsl_14480/index_3.shtml)

7) 『明太宗實錄』 卷222 己酉의 기록에는 ‘요부’라 적었고, 권223 戊戌의 기록에는 ‘妖賊’이라 호칭한다.

8) 14세기 중엽 韓山童은 백련회를 조직해 劉福通 등과 결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써서 ‘홍건군’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한산동의 아들을 황제로 추대하고, 毫州, (안휘성 호현)에 정권을 세우는데,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복진한다. 모귀가 이끄는 동로군은 원나라 도성까지 복진했다가, 원의 군대에 밀려 산동지역으로 퇴각하였다.

9) 徐景元, 『唐賽兒起義的特點』, 『中國古代史·宋遼金元明清』(第3期), 1995. pp.130-132.

10) 명초의 문헌은 당새아와 백련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명 중엽 이후, 당새아와 백련교가 관계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만력연간에 편찬된 『安丘縣誌』는 영락시기 趙璠이란 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백련의 술법을 익혀, 주변인들을 선동했으며, 포대의 요적 당새아와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다. 巫仁恕, 「『妖婦』乎? 『女仙』乎?: 論唐賽兒在明清時期的代形象轉變」, 『無聲之聲(I): 近代中國的婦女與國家(1600-195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3, p.11 참조.

高鳳을 파견하였으나, 당새아군에게 대패한다. 당새아군이 초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청주를 포함해 익도, 諸城, 安丘, 莒州, 膠州 등에 십여 개의 의군이 생겨나 그녀에게 합류하였고, 그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安遠侯 柳昇을 總兵官으로, 都指揮檢事 劉忠을 부관으로 임명하고, 역적의 토벌을 명한다. 명군이 사석봉채를 포위하자, 당새아는 거짓으로 투항하는 척하다가, 야밤을 틈타 관군을 습격하여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다. 그 해 3월, 당새아의 수하들은 거주, 即墨 등지를 공격하고 안구를 포위하지만, 뒤에 원군으로 합류한 산동 도지휘감사 위청에 의해 궤멸되고 만다. 그러나 우두머리인 당새아는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다. 영락제는 그녀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나 여도사의 무리에 섞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북경과 산동 지역의 비구니와 여도사를 모두 잡아들일 것을 명¹¹⁾했으나, 그 후 당새아가 체포되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명 중기 문인들의 문집에 종종 당새아에 대한 기록들이 보이나, 대체로 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¹²⁾

그러나 명 중기 이후부터 차츰 당새아의 이야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祝允明(1460-1526)의 『野記』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영락연간, 산동의 부녀자 당새아가 남편이 죽어, 묘에서 제사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산기슭을 지나다, 바위 틈 사이로 돌상자의 모서리를 보았다. 당새아가 그것을 열어보니, 안에 보검과 요서가 숨겨져 있었다. 당새아가 책을 취하여 익혀, 마침내 모든 술법에 통달하게 되었다. 검 역시 신물이어서 당새아가 그것을 사용하였다. 머리를 밀어 비구니가 되어, 마을에서 술법을 시연하니, 모두 영험하였다. 빈민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그녀를 따랐다. 입고, 먹고, 쓰고자 하는 재화가 있으면 모두 술법으로 조달하였다. 처음에는 반역의 뜻이 없었으나, 일이 점차 많아졌다.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에 이르자, 관에서 체포하려 하였다. 당새아가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고, 관군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조정에서 명을 내려 여러 군대를 소집하여 이를 공격하여, 수차례 전투 끝에 사망한 자 부지기수였으나, 새아는 오래도록 잡히지 않았다. 삼사는 역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죄명으로 모두 옥에 갇혔다. 머지않아, (당새아가) 체포되었는데, 사형선고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체로 밧줄에 묶인 채, 저자에 이르렀다. 형을 집행하는데, 칼이 목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감옥에 가두고, 삼구를 몸에 씌우고, 쇠로 된 수갑을 발목에 채웠다. 갑자기 모두 저절로 풀리더니, (당새아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삼사, 군, 현 장교 등이 모두 당새아를 놓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¹³⁾

11) 上以唐賽兒久不獲, 慮削發爲尼或混處女道士中, 遂命法司凡北京山東境內尼及女道士, 悉逮至京. 『明太宗實錄』, 卷223, 永樂18年3月 戊戌條, p.2203. 같은 책, 卷225, 永樂18年5月 丁丑條, pp.2211-2212 참조.

12) 薛應旂가 편찬한 『憲章錄』, 雷禮 등이 집필한 『皇明大政紀』, 鄧元錫이 편찬한 『皇明書』 등에 당새아의 난에 대한 전말이 실려 있는데, 흡사 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놓은 듯하다. 「『妖婦』乎? 『女仙』乎? : 論唐賽兒在明清時期的代形象轉變」, 앞의 책, p.8 참조.

13) 永樂中, 山東民婦唐賽兒夫死, 唐祭墓回, 經山麓, 見石罅露出石匣角, 唐發現之, 中藏寶劍妖書. 唐取書究習, 遂通曉諸術. 劍亦神物, 唐能用之. 因削髮爲尼, 以其教施於村里, 悉驗, 細民翕然從之. 欲衣食財貨百物, 隨須以術運致. 初亦無大志, 事冗浩闊; 妖徒轉盛至數萬, 官捕之, 唐遂稱反, 官軍不能支. 朝命集數路兵擊之, 屢戰, 殺傷甚眾, 逾久不獲. 三司皆以不覺察繫獄. 既而, 捕得之, 將伏法, 怡然不懼, 裸而縛之詣市. 臨刑, 刀不得入, 不得已, 復下獄, 三木被體, 鐵鈕繫足. 俄皆自解脫, 竟遁去, 不知所終. 三司, 郡, 縣將校等官, 皆以失寇誅. 祝允明, 『野記』, 『國朝典故』, 卷32, 北京大學出版社, 1993, pp.535-536.

위의 이야기는 축운명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하는 당새아에 관한 야사를 기록한 것이다. 『야기』에는 당새아가 남편의 죽음 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요서’와 ‘보검’을 획득했다거나, 필요한 재화를 모두 요술로 조달했다거나, 감옥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등, 실록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록들이 대거 삽입되어 있다. 명 중기이후 편찬된 산둥지역의 지방지¹⁴⁾, 沈德符의 『萬曆野獲編』¹⁵⁾ 등에서도 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새아에 관한 이야기가 민간에서 야사의 형태로 계속 전해졌고, 정사와는 달리 이야기 전반에 그녀에 관한 신비성이 부각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당새아가 민간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영웅으로 사랑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요적’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명말 화본소설 凌濛初의 『拍案驚奇』 권31 「何道士因術成奸 周經歷因奸破賊」은 당새아 모친이 태몽을 꾸고 당새아를 가진 이야기부터 그녀의 탄생, 성장, 농민봉기과정,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¹⁶⁾ 이 소설은 당새아를 문학적으로 비교적 완정하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속 당새아는 분명 일반인과는 다르게 묘사된다. 그녀의 모친은 꿈에서 신인이 준 신비한 알을 삼키고 당새아를 낳고, 새아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자색이 뛰어나며, 활과 칼 쓰는 법을 배우는 등, 평범한 부녀와는 다르게 묘사된다. 하지만 당새아는 나라나 백성을 위하는 영웅이 아니라, 邪術을 부리고, 색에 눈이 먼 淫婦로 묘사되고 있는 데다, 정사나 여느 야사와도 다르게 그녀가 수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소설을 끝맺음하고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보다시피, 당새아에 관한 이야기는 정사와 야사, 명 전기와 중후기 등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록은 대체로 당새아의 사적을 ‘요부’, ‘妖賊’, 혹은 ‘妖婦人’, ‘賽兒妖術’ 등의 제목 아래 기술하고 있어, 명대인들에게 당새아는 ‘역적’이라는 부정적 형상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여선외사』 속 건괘영웅 당새아

청초의 작가 여웅¹⁷⁾은 당새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100회에 이르는 장회소설 『여선외사』를 완성한다. 역사인물 당새아는 영락제 시기 농민봉기를 일으킨 반역의 우두머리였지만, 소설 속 당새아는 연왕(영락제)이 ‘정난지변’¹⁸⁾을 일으키자, 기의군왕군을 모집하여 20여 년간

14) 만력연간에 편찬한 『蒲臺縣誌』, 『諸城縣誌』에 당새아가 보검과 요서를 획득한 과정과 그녀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재물 등을 술법으로 조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15) 심덕부(1578-1642)는 만력 46년 舉人이 되었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京官을 지냈는데, 그 덕에 어려서부터 典故를 듣고 배웠다. 만력 이전의 조정문서와 역사적 사건, 향간의 자질구레한 말 등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여 『野獲編』(지금은 『萬曆野獲編』이라 부름) 30권을 지었다.

16) 凌濛初, 『拍案驚奇』, 人民文學出版社, 1995, pp.534-564.

17) 생졸연대 미상. 현재 남아있는 문인필기 및 지방지 등의 문헌자료에 따르면 강희21년(1682)부터 61년(1722)까지의 행적이 남아있다.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관리를 보좌하는 막우를 직업으로 생활했다. 작자 생평에 대해서는 石昌渝 主編,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山西教育出版社, 2004. p.248-249 참조. 그 외, 작가의 생애 중 막우생활에 관해서는 김경아, 『청대막우와 소설』, 세종출판사, 2016, p.204 참조.

의 지나간 전쟁 끝에 마침내 연왕을 참수하고 명나라를 반석의 기틀 위에 올려놓은 영웅으로 등장한다. 소설의 제2회부터 제14회까지는 당새아 本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새아의 탄생부터 그녀가 神性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와 본격적으로 연왕에게 맞서 기의근왕군으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제15회부터 제99회까지는 ‘정난지변’의 촉발과 연왕군과 당새아의 기의근왕군의 지나간 전쟁을 다루고 있다. 당새아는 천하에 역적 연왕의 죄를 천하에 낱낱이 고하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천상세계로 승천한다. 그 외 소설의 제1회는 당새아가 인간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를 밝히는 프롤로그(Prologue)이고, 마지막 제100회는 당새아가 승천하고 난 후 인간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에필로그(Epilogue)에 해당한다.

소설 속 당새아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1회이다. 소설은 당새아의 전신이 천상세계의 월궁에 살던 향아였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천랑성의 청혼을 거절하는데, 그 일로 천랑성은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된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숙원지간이 되고, 둘은 그 별로 인간세상으로 하계하게 된다. 그리하여 향아는 산둥 제남부 포대현 당기의 딸로 태어나고, 천랑성은 연왕으로 태어난다. 옥황상제는 인간세상으로 하계를 앞둔 향아에게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린다.

“너는 하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천륜이 무너졌으니, 네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심이 어지러워졌으니, 네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야 한다. 충절을 지킨 이들을 널리 알리고, 반역의 무리를 주살하여야 한다. 옳고 그름에 따라 마땅한 상벌을 준다면, 공은 있되 과는 없을 것이다. 짐의 말을 명심하도록 하거라.”¹⁸⁾

옥황상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날 그녀에게 무너진 천륜을 바로 세우고, 어지러워진 인심을 어루만지며, 옳고 그름에 따라 상벌을 주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천명’을 부여한다. 이렇듯 당새아는 난세를 평정할 영웅으로서의 임무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18) 태조 주원장(1328-1398)은 1368년 국호를 大明이라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태조는 2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황위를 계승할 황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봉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藩王으로 삼아, 그들에게 황권을 보호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는 중책을 맡겼다. 번왕들은 봉지를 받아 王府를 열고 적게는 3천명, 많게는 2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며 위세를 떨쳤는데, 그 중 넷째 아들인 연왕 棣가 가장 위세를 떨쳤다. 1392년 황태자 標가 병으로 사망하자, 태조는 황태손 允炆을 계승자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홍무 31년(1398) 태조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소년 윤문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연호를 建文이라 하였다. 건문제의 측근인 黃子澄과 齊泰, 方孝孺 등은 번왕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계하였다. 이들은 황제에게 削藩할 것을 청하고, 건문제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숙부인 번왕들의 군사권을 빼앗아 오기 위한 삭번을 감행한다. 삭번정책에 위협을 느낀 연왕은 건문 원년(1399) 북평에서 거병하였다. 연왕은 건문의 연호 대신 홍무 32년으로 고쳐 쓰고, 수도 남경으로의 진격을 준비한다. 바야흐로 숙부와 조카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연왕은 이를 황위 찬탈이 목적이 아닌, ‘황제를 어지럽히는 간사한 무리들을 처단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 변란은 1399년 7월부터 1402년 6월에 수도가 함락되고 건문제가 궁의 화재로 죽을 때까지 약 4년에 걸쳐 일어났다. 이를 일러 ‘정난지변’이라 한다.

19) “汝去，有幾件至正至大的事，是你所應做的。如天倫崩壞，汝須扶植；人心悖亂，汝須戡正，褒顯忠節，誅殛叛佞。彰瘝均得宜，便是有功無過。謹記朕言。” [제1회]. 『女仙外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0.

새아의 모친은 꿈에서 송생냥냥이 아기를 안겨주며 딸이지만 ‘아들을 능가할 것(賽兒)’이라는 예언을 듣고, 임신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15개월 뒤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태몽에 따라 ‘새아’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새아는 아주 영특한 아이로 자라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鮑仙姑²⁰⁾의 도움으로 전생의 인연을 각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포선고를 따라 曼陀尼²¹⁾가 사는 동굴에 갔다가, 그곳에서 天書 7권과 보검 1자루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九天玄女로부터 천서의 내용과 보검술을 사사받는다. 당새아는 그녀의 전신이 천상세계의 향아라는 출신성분과 인간세상에서의 천서 및 영물의 획득을 통해 신성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초월적 능력을 발휘해 인간세상에서 탐관오리를 벌하고 [제9회]²²⁾,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며 [제11회]²³⁾, 백성들을 괴롭히는 요괴도 무찌른다 [제10회, 제12회]²⁴⁾. 그러나, 당새아의 영웅성은 그녀가 단지 초월적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월균(당새아)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지금의 황상께서는 인품이 인자하고, 검소하시어, (周의) 성임금과 강임금을 능가하신다. 북쪽의 군사들이 일으킨 전쟁을 막아야하고, 중원은 이미 여러 해 흉작이 들었다. 초남지역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들이 이미 예주의 경계로 날아들었으니, 머지않아 곡식 한 톨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법력을 발휘하여, 위로는 나라를 위하고, 아래로는 너희 백성들을 위해 메뚜기떼(충제)를 쓸어버리겠노라.”²⁵⁾ [제12회]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서남에서부터 점차 동북방향으로 움직이며 땅에 있는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괴성과 함께 먹어치우고 있었다. 당새아는 그녀의 수하 만타니, 포선고를 이끌고 함께 법력으로 황재를 순식간에 쓸어버린다. 새아는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이 天災로 인한 것이든, 人災로 인한 것이든,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려 한다.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관원과 백성들은 蝗災를 없애준 당새아와 만타니, 포선고의 형상을 사당에 모셔놓고, 봄, 가을마다 제사를 올린다.²⁶⁾ 새아는 황재를 해결해 준 영

20) 중국 역사상 포선고는 葛洪의 처이다. 갈홍을 도와 신선의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抱朴子』 집필에 힘을 보탰고, 갈홍 서거 후에도 신선학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치료하였다. 소설 속 포선고는 천상 세계에서 향아의 유모였는데, 당새아가 하계하자 그녀를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녀가 신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한다.

21) 만타니는 나찰녀의 여동생으로 魔道를 수행했으나, 훗날 관음대사에게 귀의하였다. 남해법지를 받들어 하계하여 당새아를 보좌한다.

22) 제9회에서 제남부 지부 羅景은 8년간 태수노릇을 하면서 36개 현의 백성들의 돈을 착복하고, 당새아에게 흑심을 품어 그녀를 납치해 재산을 갈취하려 한다. 그러자 당새아가 그의 양물을 벗겨 거세시켜 버린다.

23) 제11회에서 靑州府에 2월부터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을 파종할 수 없게 되자, 당새아가 신통력을 발휘해 비를 내리게 한다.

24) 제10회에서 원숭이요괴(猴精)가 빈안의 딸 端姑를 자신의 짝이 환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밤마다 그녀를 찾아가 동침하여 원기를 상하게 만들자, 당새아가 요괴를 신검으로 제압한다. 제12회에서 사슴요괴(鹿怪)가 마을의 부녀자들을 납치하는데, 월균이 신검으로 녹괴를 네 동강 내 버린다.

25) 月君宣示道: “目今皇上仁慈恭儉, 勝似成, 康. 奈北地兵戈騷擾, 中原屢見凶荒. 楚南又起蝗蟲, 已入豫州境界, 將來禾黍一空. 我當大施法力, 上爲國家, 下爲爾民, 掃此蟲災.” 위의 책, p.74.

26) 제13회에서, 개봉부의 관원은 당새아가 황충을 전멸시키는 것을 보고, 백성들과 상의 끝에 萬壽院을 수리해 三聖殿으로 바꾸고, 당새아, 만타니, 포선고의 형상을 모셔놓고 제사지낸다.

웅으로서 백성들에게 추앙받으나, 그녀의 영웅성은 그녀가 가진 초월적 능력보다 그녀가 고통 받는 백성을 위하는 이타심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심을 가졌다는 데서 더 두드러진다.

당새아의 영웅적 기개는 연왕이 군사를 일으켜 건문제에게서 천하를 빼앗으려 한 정난지변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소설 속 정난지변의 전개는 제15회에서 제18회까지의 짧은 편 폭 안에서 빠르게 진행된다. 연왕은 건문제원년을 홍무32년으로 고친 후, 정난군을 일으켜 수도 남경으로 진격하고, 건문제는 경병문과 이경룡을 차례로 대장군으로 임명해 맞서지만 결국 패전하고 만다.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설정을 삽입한다. 즉, 궁궐의 화재로 건문제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승려로 변장해 도주했다는 野史의 설을 새로이 삽입한 것이다. 건문제가 살아있다는 설정은 천하의 뜻있는 자들이 기의하여 연왕에게 맞서 싸울 대의명분을 제공하고, 새아는 이러한 ‘起義勤王(의병을 일으켜 임금에 충성한다)’의 선두에 선다. 새아는 연왕에게 맞설 기의근왕군의 출병을 앞두고, 천하에 맹세의 표문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건문4년 여름 6월 8일, 신(당새아이자 항아)과 동지들이, 천지신명께 맹세하옵니다. “비천한 연의 변왕 체가 조정에 반역을 일으켜 수도로 쳐들어 와 사직을 찬탈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과 신이 모두 증오하는 바이고,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 항아는 일찍이 상제로부터 연왕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고, 현녀로부터 직접 도술을 사사했으며, 의사 동언고 등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하였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충성심을 나누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기를 손질하며, 근왕의 의거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비록 죽음이 뒤따른 다한들 어찌 사양할 것이며, 설령 머리를 바친다한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신께서 죽음을 내리실 것입니다.”²⁷⁾ [제19회]

소설 속 당새아는 연왕이 모반을 일으켜 남경으로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기의근왕’의 기치를 내세워 병사를 모은다. 기의근왕에 앞서 새아가 천하에 공표한 표문의 내용은 옥황상제가 그녀에게 부여한 ‘천명’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킨 기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뿐 아니라 그녀의 영웅적 기개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당새아의 영웅성은 그녀와 대척점에 있는 연왕의 잔인한 행위가 부각될수록 더 두드러진다. 제21회와 제22회는 연왕이 건문제의 충신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연왕은 자신의 즉위조서 쓰기를 거부한 신하들을 모두 잔인하게 죽인다. 방효유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귀밑까지 찢어버리고, 방씨의 일가친척 뿐 아니라 문생과 친구를 포함한 10족²⁸⁾을 참수하고, 중사 胡閏을 죽인 후 잣물에 담가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속을 풀로 채워

27) 建文四年夏六月朔越有七日, 臣唐姁等, 誓告於皇天後土之靈曰: 孽藩燕棣, 反叛朝廷, 進逼京師, 將篡社稷. 人神之所同嫉, 天地之所不容, 臣姁曾奉上帝勅掌殺伐, 玄女親傳道術, 與義士董彥杲等, 矢心戮力, 共抒殉國之丹忱; 秣馬厲兵, 首倡勤王之義舉. 雖蹈鼎鑊以奚辭, 縱捐肝腦而靡悔. 有渝斯盟, 明神殛之. 위의 책, p.208.

28) 연왕 주체가 방효유에게 황제로 등극하기 전 즉위 조서를 작성하라고 명했다. 만일 쓰지 않으면 ‘구족’을 없애겠다고 협박했으나, 방효유는 ‘십족을 없앤다 해도 내가 어찌 하겠소’라며 주체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체는 방효유의 구족과 더불어 그의 벗과 문하생들을 십족으로 규정하고 모두 참수시킨다.

인형을 만들어 호시한다. 高翔의 몸을 칼로 두 동강내고, 그 일족을 참수할 뿐 아니라, 조상의 묘를 파헤쳐 잡건의 뼈와 함께 태워 그 재를 측간에 흩뿌린다. 첩도어사 司中, 형부상서 暴昭는 그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철로 만든 빗자루로 피부를 쓸어버린다. 예부상서 陳迪, 공부상서 侯泰에게는 그들 자식의 귀와 코로 만든 요리를 먹이고, 3족을 참수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끝까지 대항한 鐵公을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 튀겨버리고, 그의 두 아들을 腰斬시키며, 그 처와 딸들을 교방으로 보내버린다.

이에 반해, 당새아는 청주부의 아문 중 하나를 선택해 건문제의 행궁으로 삼고, 그 곳에 황제의 초상화와 玉圭를 모시고 역적 연왕 토벌의 기치를 내걸며 정통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연왕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거나 규방으로 보내진 충신의 자제들을 구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당새아의 기의근왕에 뜻을 같이 하는 자, 건문제의 충신과 그의 자제들이 차례로 기의근왕군에 합류하면서, 새아와 연왕의 전투는 곧 충신 대 역적의 대결로 치환된다. 새아는 20여 년의 전쟁기간 동안 무너진 사상적 근간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천착한다. 그녀는 인재를 선발하는 6科를 재정비하고, 군신전례, 남녀의제를 새롭게 반포하며, 刑書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 부세, 요역, 樵關²⁹⁾, 錢法, 鹽政을 擬定하여 명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무너진 강상을 바로세우기 위해 건문의 충신들에게 시호를 내려 그들의 충성심을 널리 알리고, 연왕의 간신들을 모두 척결하여, 세상에 인과에 따른 상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나긴 전쟁 끝에 연왕을 참수하여 정난지변을 종결지은 당새아는 옥황상제가 부여한 ‘천명’을 모두 완수한 점을 인정받아, 마침내 원래 그녀가 속했던 천상세계로 되돌아간다.

4. 요적에서 건국영웅으로의 변신

명대의 실존인물 당새아는 그녀가 속했던 시대에 ‘요적’, ‘요부’라 불린 역적이었으나, 청 왕조가 들어선 후, 돌연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소설에 등장한다. 아무리 허구라 하더라도 유교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한 봉건사회에서 독자들이 역적을, 그것도 여성을 영웅의 캐릭터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여선외사』는 과감히 실존했던 역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 이 작품은 청 초기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다.³⁰⁾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나모포시스(Anamorphosis)’³¹⁾처럼 이 소설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 정식 명칭은 鈔關이다. 명대 세금을 징수하던 기관을 가리킨다.

30) 장배향 선생은『여선외사』에 평어를 남긴 이가 67인에 이르고, 그 중 고관대작 및 당시 문단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두고, ‘이는 고대통속소설 중 전대미문의 현상(這在古代通俗小說中是空前絕後的現象)’라고 평가한 바 있다. 呂熊, 『女仙外史·前言』, 上海古籍出版社, 1991. p.7 참조.

31) 아나모포시스는 미술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일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림에 나타난 이미지가 뒤틀려 보이지만, 시점을 달리하면 왜곡이 사라지고 그림 속의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인다. 한자로 는 왜상(歪像)기법이라고 한다.

1) 당새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명대에 당새아가 사술을 부리는 ‘요적’, ‘요부’로 부정적 형상이 강했다면, 청대에 들어서면서 그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겨났다. 청대 초기 谷應泰(1620-1690)³²⁾는 『明史紀事本末』 卷23 ‘平山東盜’에서 정사의 기록과 야사를 종합하여 ‘당새아의 난’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그 글의 말미에 덧붙인 ‘곡응태曰’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대의 기록과는 다른 두 가지 변화를 짚어낼 수 있다. 하나는 당새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새아를 체포하기 위해 북경과 산둥 지역의 비구니, 여도사 수만 명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고문한 영락제의 잔인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새아를 두고 ‘요괴인지,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라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다.³³⁾ 곡응태의 저술은 순치15년(1658) 출간된 이후 청대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여웅이 『여선외사』를 창작하는데, 직접적인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청초의 명사 劉廷璣(1676-?)는 여웅이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기까지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었다.³⁴⁾ 그는 여웅이 쓴 소설을 두고, “『외사』의 앞 40회는 새아라는 여인의 전이다. 이는 『기사본말』에 실린 몇 마디 말을 표제로 삼아 엄청난 문장으로 지어낸 것이니, 비록 허황된 부분이 있으나 또한 사실에 부합하기도 한다.”³⁵⁾라며 소설의 창작배경을 밝힌 바 있다. 江西學使 楊念亨 또한 소설의 창작, 특히 당새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를 곡응태의 평가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정사에서 포대현 요부 당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지금 『외사』는 그녀를 여선이라 일컫고 있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건대, 예로부터 요술로 난을 일으킨 자들, 예를 들어 장각, 왕칙의 무리들은 사악함이 바름을 이기지 못하기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새아는 수하들을 해산시키고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성조가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그녀를 반드시 체포하고자 하였다. 비구니, 여도관 십만여 명을 체포해 심문하니, 새아가 홀연히 공중에서 스스로 나타났다. 비록 칼, 도끼를 사용하고, 가마술에 삶아도 그녀의 머리털 한 올 상하게 하지 못했다. 비구니들이 모두 석방되

32) 청나라 직례(直隸) 풍윤(豐潤) 사람. 자는 갱우(廣虞)고, 순치(順治) 4년 진사(進士)가 되었다. 호부주사(戶部主事)와 원외랑(員外郎), 절강제학첨사(浙江提學僉事) 등을 역임했다. 제자양성에 힘을 쓰는 한편, 명나라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두루 수집했다. 이특히 장대(張岱), 서탁(徐倬) 등의 도움으로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을 완성했다. 그 밖의 저서로 『축익당집(築益堂集)』이 있다.

33) 成祖永樂十八年三月, 山東蒲台縣妖婦唐賽兒作亂. ……上以唐賽兒久不獲, 慮削發爲尼或混處女道士中. 遂命法司: 凡北京、山東境內尼及道姑, 逮至京詰之. ……尤可異者, 賽兒蹤迹杳不可問, 豈軍中張燕, 群號衝飛, 河上孫恩, 相傳水化. 妖耶? 人耶? 吾弗知之矣.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卷23 ‘平山東盜’, 中華書局, 2015. p.374 참조.

34) 유정기가 강서학사로 부임했을 때 여웅의 방문을 받았는데, 당시 여웅은 소설 『여선외사』를 구상 중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자, 유정기는 여웅의 뜻에 적극 공감하며 여웅이 소설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준다. 甲申(1704), 여웅이 소설의 초고를 완성하여 유정기에게 보여주고, 여웅은 유정기의 의견을 좇아 소설의 초고를 수정한다. 劉廷璣, 『在園雜誌』, 中華書局, 2005. p.191. 참조.

35) 『外史』前40回是爲賽兒女子作傳. 據『紀事本末』所述數語爲題, 撰出大文章, 雖虛亦實. (江西廉使劉庭璣在園品題). 呂熊, 『女仙外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078.

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져 버렸다. 곡옹태 선생은 『기사본말』에서 “선녀인가? 요부인가? 나는 모르겠노라!”라고 하였다. 그의 뜻은 선녀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일수가 새아를 선녀로 설정한 것은, 대개 그의 말에 뿌리를 둔 것이다.³⁶⁾

양염정은 정사에서 요부라 칭한 당새아를 소설에서 여선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놀라운 변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곧이어 『여선외사』 속 당새아의 형상이 전혀 근거 없는 설정이 아니라, 그녀에 관한 야사와 곡옹태 선생의 평가에서 기인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양염정은 마치 곡옹태 선생의 말에서 숨은 행간을 읽어낸 듯, 당새아에게 ‘仙’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있다. 작가 여웅 또한 99회의 평에서 말했듯, 物性이 영험하고 기이한 것을 ‘妖’라고 하고, 인간이 영령하고 기이한 것을 ‘仙’이라 하니, 두 가지 모두 인간과 사물의 ‘뛰어남’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당새아를 여선으로 본 것임에 분명하다.³⁷⁾ 사실 곡옹태는 당새아를 평가할 때 ‘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을 읽은 이들이 그 행간에서 ‘仙’의 이미지를 해석해낸 것은 당새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妖’라는 부정적 형상이 명대 중후기를 지나 청대에 들어서면서 그 색채가 상당히 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청초기 사회가 당새아를 ‘요녀’, ‘요부’의 형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유교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봉건사회에서 독자들에게 통속소설의 주인공으로 반감 없이 수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작가 여웅과 평어자들은 당새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妖’에서 ‘仙’으로의 의도적인 전환을 시도하였고, 정사 및 야사에 기록된 그녀의 초능력과 미스터리한 행적은 독자들이 서사세계 속 여선 당새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여선의 신분을 갖게 된 당새아는 인간세상으로의 하계를 통해 영웅으로 다시금 변신하게 된다.

2) ‘反反者不爲反’

『여선외사』는 비록 당새아와 연왕이 천상세계의 항아와 천랑성의 轉身이라는 환타지적 설정에서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 소재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난지변을 다룬 역사소설에 가깝다. 흥미로운 점은 실존인물 당새아는 영락제 재위 18년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어서, 정작 정난지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당새아를 시간의 좌표를 좀 더 과거로 이동시켜 정난지변에 옮겨 놓았다. 즉, 영락제-당새아의 구도를 과거의 시

36) 念亭曰：正史書蒲台縣妖婦唐賽兒反，今『外史』謂之女仙，得無駭異？余按：從來以妖法作亂者，如張角、王則之徒，邪不勝正，終必殄戮；而賽兒則解散部屬，從容而去，成祖嚴行大索，必欲獲之，逮繫女尼女冠數十萬勘問，賽兒忽從空自至，雖刀鋸斧鑕鼎鑊，不能傷其毛髮，俟女尼等既釋，遂御風不知所之，谷應泰先生『紀事本末』斷云：「仙乎？妖乎？吾弗知之矣！」意重在仙之一邊，則叟之以賽兒為女仙，蓋本諸此。 위의 책, p.1073.

37) 『明史』云：山東蒲台縣妖婦唐賽兒反。前賢評之曰：仙乎？妖乎？吾弗知之矣。其間存一疑似甚善。從來物之靈異者謂之妖，人之靈異者謂之仙，仙，與妖，兩字，原有人與物之殊。是則唐賽兒之為女仙也無疑。夫使賽兒起兵于建文之世，名之曰反，誠然，今起兵于永樂之時，則彼之燕王篡位者，當謂之何？所以書中彼此為妖寇妖賊，此以彼為逆藩逆賊。賽兒固不能滅燕，即燕亦何曾滅得賽兒？而建文皇帝且宛然在也。 위의 책, pp.1046-1047.

간으로 옮겨 정난지변에서의 영락제-당새아의 구도로 변환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여웅은 왜 정난지변과 전혀 관계없는 당새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이 점에 대해서 평어자 향천(香泉)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옛날 건문의 신하들 중 체포당해 (연왕의)세력에 격렬히 저항한 자, 이미 죽음을 당하였고, 설령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복위를 도모하였다가 이루지 못하자, 후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어떻게 돌연히 서로 앞 다투어 일어나 절개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전수(여웅)가 『외사』를 지어서, 한 여인에게 그 뜻을 기탁한 것이다.³⁸⁾

여웅의 소설은 비록 환타지적 요소를 곳곳에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열개는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만일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난지변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한다면, 건문제나 그의 측근들은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역사의 기록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되 실제 군대를 통솔했으며, 영락제와도 대치관계에 있었던 캐릭터를 찾아 ‘정난지변’이라는 시간의 좌표에 이식시켜야 했다. 그럼 점에서 볼 때, 당새아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새아가 소설에서 정난지변을 제압하는 영웅으로 변신한 데에는 그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영락제와 대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무릇 당새아가 건문시기에 기병하였다면 그녀를 반역자라 부르는 것이 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당새아는) 영락시기에 기병하였고, 그 연왕이 황위를 찬탈한 자라면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그래서 정사에서는 당새아를 ‘요구’, ‘요적’이라 부르고, 이 소설에서는 연왕을 ‘역변’, ‘역적’이라 부르는 것이다.³⁹⁾

여웅은 당새아가 반역자라는 공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녀가 반기를 든 대상이 왕조의 적통을 계승한 황제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연왕은 황제이다’를 P로 두고, ‘당새아는 반역자이다’를 Q로 놓았을 때, P=Q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가 참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웅은 연왕이 적통 건문제에게서 황위를 찬탈한 역적이기에 P자체가 거짓이므로, 당새아가 역적이라는 명제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葉敷의 跋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릇 영락은 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칼을 위로 겨누었던 자이므로, 그를 ‘반역자’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영락제가 정난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내려와 황성에 입성하여, 황제임명 조서를 쓰는 날, 방효유, 고상, 호윤, 철현, 폭소, 연자녕 등 충신들 모두 그의 면전에서 ‘연적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며 꾸짖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 ‘반역’이라는 글자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⁴⁰⁾

38) 香泉曰：故夫建文諸臣，其有已被搜獲而激於勢者，固不得不死。苟全其身，宜圖復位，而不能，而後死何遽紛紛焉相率而盡節與？此逸田叟所以作『外史』，而寓其意於一女子。 위의 책, p.240.

39) 夫使賽兒起兵於建文之世，名之曰反，誠然，今起兵於永樂之時，則彼之燕王篡位者，當謂之何？所以書中彼以此爲妖寇妖賊，此以彼爲逆藩逆賊。 위의 책, p.1047.

위처럼 연왕이 반역자라는 논리적 명제로 인해, 당새아에게 씌워진 역적의 색채는 희석되고, 이에 반해 그녀가 역사적으로 연왕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부각되었다. 건문제와 연왕이 대립하였고, 당새아 역시 연왕과 대립하였기에, 건문제와 당새아는 연왕이라는 공통의 적을 둔 셈이다. 그리하여 건문제↔연왕, 영락제(연왕)↔당새아로 대치되는 순차적 대립관계를 하나의 지점으로 합쳤을 때, 건문제, 당새아↔연왕이라는 심리적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역적 연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건문제가 진정한 황제이자 정의의 편이며, 정의의 편에서 연왕을 타도하는 당새아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人理의 집행자, 당새아

정난지변은 유가사상의 근간을 뒤흔든 不忠, 不義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 황실의 정통성과 직결되었기에, 그 시대에 제대로 조명되거나 평가받지 못했다.⁴⁰⁾ 그러나, 청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은 전환기를 맞이한다. 더 이상 정난지변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니었다. 소설은 ‘정난지변’을 조명하지만,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정사의 기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과 악을 치환한다. 연왕과 그의 군사들은 ‘燕賊’이자, ‘逆兵’이고, 당새아는 충의의 상징이자, 건문제의 편에 서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치환되었다. 작가가 이런 파격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변용시킨 데에는 당시 사회가 연왕을, 정난지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말해준다. 제17회의 평어를 살펴보자.

李漁村이 말하길,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이나, 오로지 건문과 영락지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건문이 황제가 된 것은 ‘인간의 이치’였으나, 영락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이치’였다. 하늘이 흥한 바, 인간들은 모두 그것을 싫어하였다. 인간이 세운 바, 하늘은 그것을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사악한 것을 남기고, 바른 것을 내친 것이다! 말하기를, 많은 충신 의사, 효자 절부의 뜻을 좋은 쪽으로 이루어주고자 한 것일 따름이다.

龔澹岩이 말하길, …… 성웅, 평안의 패배는 전투로 인한 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 간신들이 연왕에게 투항한 것을 몰랐던 것 또한 ‘하늘의 뜻’이었지, ‘인간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충신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것은 인간의 뜻이지 하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정한 바가 인간의 뜻을 이길 수 있으나, 이는 일시의 성패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정한 바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바로 백세에도 변함없을 강상이다. [제17회 평

40) 夫永樂既爲天子矣,而有舉刀相向者,不得不謂之曰反。……第文皇靖難師下江南,入金川,草詔登基之日,方孝孺、高翔、胡閏、鐵鉉、暴昭、練子寧諸大忠臣,莫不面斥之曰「燕賊反」,此反字有可證者。(廣州府太守葉敷南田跋語), 위의 책, p.1071.

41) 萬曆年間(1573-1620) 건문제의 측근이었던 체태, 황자징, 연자녕, 경청 등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고, 과거 사건에 연루되어 수자리 보내졌던 이들이 모두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그리고 이때를 전후하여, ‘정난지변’을 소재로 한 통속소설들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강사소설 『承運傳』과 『續英烈傳』 뿐 아니라 명말 화본소설 『型世言』과 『西湖二集』에서도 ‘정난지변’을 일부 언급하고 있다. 다만 위의 소설들은 대체로 작중 인물이 ‘정난지변’의 발생과정에서 개인적 덕목인 가문의 창달과 사회적 덕목인 충절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사로 수렴하는 경향을 띠고, 황위를 찬탈한 연왕이 ‘聖君’이었다는 관점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어]⁴²⁾

건문 3년 3월, 연왕이 동북쪽에 자리하고 건문제의 천군이 남서쪽에 자리한 상황에서, 연왕은 바람의 방향이 천군 쪽으로 향하자 그 틈을 타 화약으로 공격해 천군을 대패시킨다. 이윽고 전열을 가다듬은 천군이 연왕을 공격해 목숨을 빼앗으려는 찰나, 자운이 땅에서 피어올라 연왕을 덮고, 구름 속에서 신인이 나타나 그를 보호한다. 이어촌과 공담암은 이 회차의 내용을 두고 ‘사람의 이치(人理)’와 ‘하늘의 이치(天理)’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정난지변의 전말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연왕이 천군과의 대적에서 ‘바람’이나, ‘자색 구름’, ‘신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역사 속 연왕은 천륜을 어겼으나 황제로 등극하였다. 이에 반해, 건문제의 천군은 대의명분을 가졌으나 패자가 되었고, 그 후손들은 명왕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만일 이어촌과 공담암이 말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역사’와 ‘문학’의 향으로 대입한다면, 이 소설의 주제와 가치가 더 드러난다. 즉, 역사가 하늘의 이치라면 『여선외사』 속 서사는 ‘인간의 이치’이며, 소설 속 당새아는 무너져버린 ‘인간의 이치’를 바로잡아 집행하는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 당새아는 정사와는 달리 건문의 연호를 사용하고, 정난지변으로 순국한 제신들에게 시호를 내려 그들에게 충신의 명예를 되찾아주며, 연왕의 무리들을 벌할 뿐 아니라 연왕의 12가지 죄목을 낱알이 천하에 고하는 등,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아 무너져버린 강상의 도리를 회복한다. 제46회의 평어자 王新城은 당새아가 행한 일들이야말로 “그 宗旨을 논한다면 正史에 해당한다”⁴³⁾라고 했고, 又航은 그녀가 “만세 인심의 공분을 배출했다(以泄萬世人心之公憤)”라고 평하였다. 제100회의 평어자 재원은 “마침내 새아라는 이 여인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민심에 ‘충의’가 사라지지 않음을 알게 하였다.”⁴⁴⁾라며 그녀의 영웅적 행보를 칭송하였다. 이처럼 독자들이 소설 속 영웅 당새아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결여된 부분을 메운, ‘사람의 이치’를 실현한 캐릭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 결론

『여선외사』 속 당새아의 형상은 작가나 대중들이 그녀가 일으킨 농민봉기에 공감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가졌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명대에 당새아는 민간종교조직을 이용해 농민봉기를 일으킨 ‘산동의 요적’으로 기록되었고, 청대에 들어서면서 비록 그녀 앞에 붙은 ‘妖

42) 李漁村曰從：來天人一理，唯建文，永樂之際不然。建文之爲君，人也；永樂之爲君，天也。天之所興者，人皆惡之。人之所立者，天則厭之。是天之所以畀邪黜正哉！曰要成就多少忠臣義士，孝子節婦耳。

龔澹岩曰：……盛庸，平安之敗，非戰之罪也，天也。不知奸臣之降燕，亦天也，非人也。忠臣之殉國，則是人也，而非天也。是故天定可以勝人，謂一時之成敗；人定可以勝天，乃百世之綱常。 위의 책, p.195.

43) 王新城曰：……此書有三大綱，一崇奉建文帝年號，二追議殉難諸臣爵諡，三討燕十二大罪，皆俱『綱常』之微意。故謂之奇書者，論其文也，若論其旨，則爲正史。 위의 책, p.519.

44) 余讀逸田『外史』而嘆谷氏之言，竟得之賽兒一女子，則知千載之下，忠義之不泯於人心也。 위의 책, p.1064.

라는 수식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긴 했으나, 그녀가 ‘賊’ 이었다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여웅은 돌연 역적 당새아와 그녀의 휘하 장수들을 소설 속에서 난을 제압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신시켰는데, 이는 『여선외사』가 창작되고 소비되었던 청대 초기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난지변 발생 이후, 대중들은 숙부에 의해 황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소년황제와 그를 향한 충심을 지키느라 모진고문과 멸문을 당하다시피 한 충신들을 동정하였으나, 영락제의 잔인함을 비판할 수도, 건문제나 충신들을 동정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왕조가 교체되면서, 정난지변의 과오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본문에서 언급한 곡응태의 평가가 청초기 문인들의 영락제에 대한 재평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본다면, 여웅은 소설이라는 허구적 방식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영락제의 반역행위와 정통성을 비판하고 있다. 당새아가 『여선외사』에서 주인공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농민봉기를 일으켰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봉기한 대상에 있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당새아는 영락제에게 반기를 든 반역자였기 때문에 소설에서 영락제가 일으킨 정난지변을 진압하는 영웅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가 여웅은 소설 『여선외사』를 통해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살았던 청초기 사회가 정난지변을 바라보는 시각을 관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이 구상단계부터 집필, 출판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점은 당시 사회가 충신과 간신, 황실의 적통과 역적이 전복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인간의 이치’를 바로 세워 민심의 공분을 배출해 주기를 얼마나 원했는가를 알 수 있다. 역적 당새아가 소설 속 영웅으로 변신하고, 또 독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소설 속에서 구현해 낸 세계가 결국 독자들의 바람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明太宗實錄』, 卷222, 卷223.
 江慶柏 編, 『清代人物生卒年表』, 人民文學出版社, 2005.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中華書局, 2015.
 郭成康 等, 『康乾盛世歷史報告』, 中國言實出版社, 2002.
 魯 迅, 『中國小說史略』, 上海古籍出版社, 1998.
 談 遷, 『國權』, 卷17.
 呂 熊, 『女仙外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劉廷璣, 『在園雜志』, 中華書局, 2005.
 凌濛初, 『拍案驚奇』, 人民文學出版社, 1995.
 李漢秋·胡益民, 『清代小說』, 安徽教育出版社, 1997.
 石昌渝, 『中國小說源流論』,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4.
 石昌渝 主編,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山西教育出版社, 2004.

- 邵大業, 『昆山新陽合志』, 乾隆15年刊本.
- 張俊, 『清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 張慧劍 編著, 『明清江蘇文人年表』, 上海古籍出版社, 1986.
- 趙園,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祝允明, 『野記』, 『國朝典故』 권32, 北京大學出版社, 1993.
- 김정아, 『청대막우와 소설』, 세종출판사, 2016.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녀선외사』(상·하), 이회문화사, 2005.
-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89.
- 중국사연구회 편역, 『중국역사』, 신서원, 1993.
- 杜貴, 『女仙外史의顯與晦』, 『文學遺産』, 1995.
- 劉倩, 「『靖難』及其文學重寫」, 中國社會科學院 研究生院 博士論文, 2003.
- 劉瓊云, 「人, 天, 魔——『女仙外史』中的歷史缺憾與‘她’界想像」, 『中國文哲研究集刊』, 第38期, 2011.
- 劉鵬飛, 「靖難之役的另類書寫——『女仙外史』研究」, 陝西理工學院 碩士論文, 2011.
- 劉瑩瑩, 「清代通俗小說女將形象研究」,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 李虹瑤, 「試談清代唐賽兒形像的發展」, 『唐山師範學院學報』, 第1期, 2015.
- 巫仁恕, 「『妖婦』乎? 『女仙』乎?: 論唐賽兒在明清時期的代形象轉變」, 『無聲之聲(I): 近代中國的婦女與國家(1600-1950)』,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2003.
- 徐景元, 「唐賽兒起義的特點」, 『中國古代史·宋遼金元明清』, 第3期, 1995.
- 徐扶明, 「呂熊與女仙外史」, 『中國文學研究』, 1992.7.
- 宋華燕, 「近年『女仙外史』研究述評」, 『廣播電視大學學報』, 第2期, 2013.
- 楊梅, 「呂熊與女仙外史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06.
- 於丹, 「嫦娥形象與女仙外史的創作」, 『學習與探索』, 2004.03.
- 張強, 「論女仙外史藝術上的選擇」, 『明清小說研究』, 1991.04.
- 程國賦·楊劍兵, 「呂熊及其『女仙外史』新論」, 『陝西師範大學學報』, 第40卷第1期, 2011.
- 趙世瑜, 「『女仙外史』初探」, 『漢中師院學報』, 第2期, 1983.
- 馮汝常, 「在正統與反正統的膠合點上立意——女仙外史的歷史觀」, 『雲南師範大學學報』, 2006.07.
- 向芑, 「『女仙外史』評語探微」, 『明清小說研究』, 第4期, 2010.
- 송정화, 「神話 속 英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국소설논총』, 제45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5.
- [臺灣中央研究院]: <http://www.mh.sinica.edu.tw/index.aspx>
- [中文百科在綫] ‘唐賽兒’: <http://www.zwbk.org/MyLemmaShow.aspx?zh=zh-tw&lid=107291>
- [百度百科] ‘東昌之戰’: <https://baike.baidu.com/item/%E4%B8%9C%E6%98%8C%E4%B9%8B%E6%88%98/734603?fr=aladdin>
- [百度百科] ‘北平’: <https://baike.baidu.com/item/%E5%8C%97%E5%B9%B3/1193468>
- [中國社會科學網]: http://ex.cssn.cn/sjxz/xsjdk/zgjd/sb/jsbml/mtzsl_14480/index_3.shtml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唐賽兒, 燕王, 建文帝, 靖難之役, 巾幗英雄, 女仙外史		
	영문	Tang Sai'er, King Yan, Emperor Jian Wen, the Battle of Jingnan, Fictional Heroine, NuXianWaiShi		
<div>Change from a Historical 'YaoZe' to the Fictional Heroine in novel — Focused on NuXianWaiShi in Qing Dynasty</div> <div>Kim, Kyung-A</div> <p>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age of Tang Sai'er, the female protagonist of a novel from the Qing Dynasty. Tang Sai'er is a real person from early Ming Dynasty, and the author, Lu Xiong, recreated her as a protagonist of a novel. A point of interest is that Tang Sai'er was the leader of the rebel forces leading a peasant uprising, under the rule of Emperor Yong Le, based in Shandong Province. People believed that she could perform magic, and called her the 'wicked thief.' Lu Xiong, an author of the Qing Dynasty, used Tang Sai'er as the protagonist of his novel NuXianWaiShi. However, Tang Sai'er in the novel is no longer a rebel. She is a loyal warrior helping Emperor Jian Wen to overthrow the traitor King Yan, who finally kills traitor King Yan after 18 years of massive war and transforms into a female hero leading wars to victory.</p> <p>It is highly noteworthy that a female was put up as not only a hero leading a large army in an era of feudal dynasty, but a leader of a peasant uprising. The author described a rebel as a loyalist, and let a woman reign over men. This character of Tang Sai'er is an unprecedented character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Thus, this study casts light upon the dramatic transformation of the image of Tang Sai'er from three angles. Firs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Ming Dynasty is compared for analysis against the image of Tang Sai'er in the novel. Second, the background of the author's creation of the novel and the world realized in the novel are analyzed. Third, the public response to the image of Tang Sai'er is analyzed through the readers' response after reading the novel. It is thought that through the above three attempts at analysis, it would be possible to unveil the reason that Tang Sai'er, a rebel from the Ming Dynasty, was transformed into a hero in a novel from the Qing Dynasty.</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경아 / 金敬娥 / Kim, Kyung-A		
	소 속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Em@il	shun7ziran@de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02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